



(35) 碩星 김형수 화백

■ 전라도 역사이야기

-도포와 송의농장

# “亞문화전당에 국립현대미술관 꼭 들어가야”

“우리 것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가는 세대가 아쉬워요. 서구만을 좇고 유행만을 따르는 시대 풍토가 예술계에도 만연합니다”

의제와 남농의 뒤를 이어 새롭고 독창적인 화맥을 일구며 호남의 동양화단을 지키고 있는 석성(碩星) 김형수(金亨洙·79) 화백은 첫 마디를 우리 것에 대한 자존심으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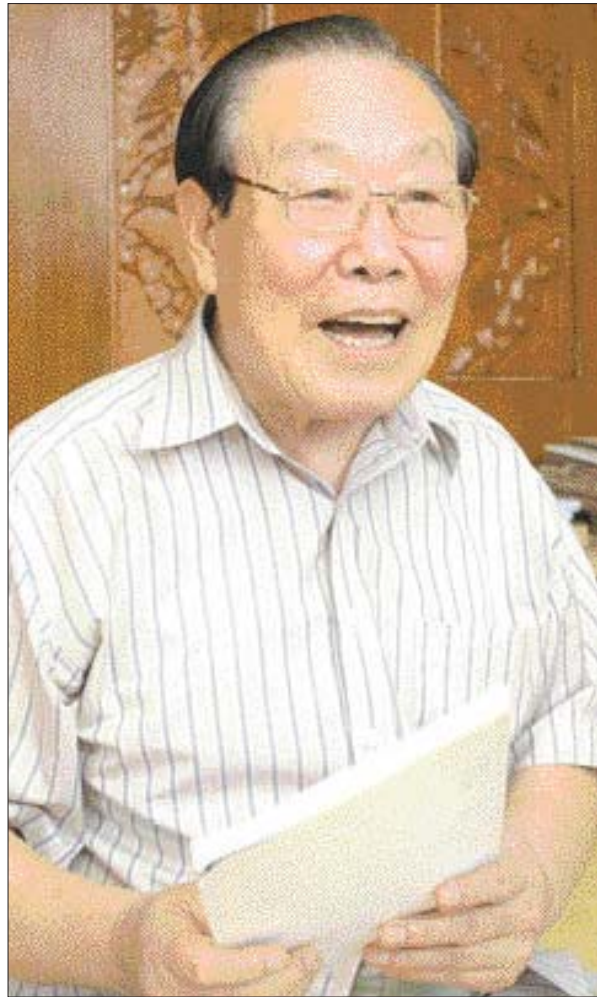
우리 것에 대한 무지와 흠대, 자존심의 상실이 예향인 광주를 나라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형 미술관을 가면 자국의 ‘대가’라 칭하는 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유난히 돋보이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 밑에는 값을 매겨 놓는데, 그 가격이 고초나 고갱 등의 작품에 전혀 뒤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보여주고 대목이다.

또한 일제시대에 일인들이 만든 담배에는 담배 갑 안쪽에 조그만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풍속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얘기도 곱들였다. 비록 자신들이 복속시킨 나라지만 그 나라의 그림 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대에 대한 개탄은 그의 미술세계와도 직결된다.

“그림은 그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림이라는 것은 어차피 재능과 노력이 동반돼야 가능하지 않아요. 내 그림이 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그림이 아니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1990년 전남대 예술대 동양학과 출강 당시, 여수 돌산에서 아이의 수업을 마친 뒤 제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석성 김형수.

다. 2년여 동안 남농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활발한 운필, 부드럽고 정감어린 향토 풍경화의 기법을 배운다. 광복 다음 해 광주서중으로 전학한 석성은 이 학교에서 또 한명의 스승 동강(東岡) 정문면(鄭雲勉) 선생을 만난다. 동강은 일본 화법의 영향을 받은 채색기법이 탁월해 석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석성의 재능은 의제 선생도 인정한 바, 그가 첫 개인전(68년 광주 아카데미다방)을 가질 때 의제 선생은 전례없이 ‘석성군은 일찍이 사도(斯道)에 있어 각의발분(刻意發憤), 이(理) 법(法)을 다하고 시취(詩趣)를 근저로 한 남종화에 정진하여 제 선배의 심안(心眼)을 경악케 한다’라는 추천사를 손수 써주면서 격려했다.

## “일제도 한국미술 높게 평가 담배갑 속 김홍도 그림 넣어”

- 약력**
- ▲1929년생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출생.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심사위원
  - ▲한·독 미술기협회 독일전 출품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기념전 초대 출품
  - ▲대건신학대학, 전남대 예술대 미술과 출강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선정한 원로미술작가

손이다. 외가 쪽으로 역시 조선조 대학자인 정여창에 닿아있다. 이 같은 가문의 배경이다 시서화 가무 등 풍류에 능한 선비였던 부친(김철중)의 영향으로 석성은 어린시절부터 예술적 환경에서 자랐다.

스승 심산(心汕) 노수현(盧壽鉉)을 만나는 행운도 부친의 후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방 유지였던 부친의 초대를 받고 심산이 해남에서 수개월 가량 머물 때 맺은 인연으로 15살 되던 1943년에 서울로 올라가 심산 댁에 머물면서 제자 수업을 받는다. 원래 제자를 거의 두지 않는 심산이 석성을 지도한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부친의 창씨개명 거부로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석성은 목포 문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귀향한다. 목포에서도 부친의 덕으로 이웃에 살던 남농에게 그림 수업을 받는

석성의 화업이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게 된 계기는 1980년 9월 서독의 본에서 가진 초대전이다. 그 무렵 유럽에서 단 하나뿐인 한국인 화랑 ‘갤러리 킵’을 운영하고 있던 김희일 씨의 주선으로 열린 그 전시회는 석성의 역량이 유럽에까지 뻗었다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석성의 초대전은 여러가지 화제를 낳았다. 우선 35점의 전시 작품 중에서 18점이 현지에서 팔렸다. 유럽 전시회를 열어 10점 이상이 팔린 작가는 그때까지 거의 없었다. 당시 국내 언론은 물론 독일 현지의 유력신문들도 그의 작품사진과 기사 등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석성의 전시를 소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후 81년 현대한국화협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고 8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현대미술초대전’, 86년 아시안게임 경축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88년 서울올림픽 기념 ‘한국현대미술전’ 등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전시회에 초대작가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화단의 중진 작가로 위치를 확고히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복 후 범선 등 드나든 황금어항 85년 ‘기독교영농단’ 개척촌 형성

무더위지만, 들판 벼는 속속 자란다. 영암 북서편 해창만 간척지의 도포들을 찾았다.

도포는 본디 돛포(37m)밑에 있는 개(浦)였고, 일부 나주땅도 있어 서남쪽 섬들을 ‘나주마태’라 했다.

입란 이후 500m 폭을 쌓아 농토를 개척한데서 기원한 원목마을은 현풍과 김해김 씨가 모여 200여 호의 큰 동네가 됐다. 근처 가척(영가척·나가척)과 봉호정도 대촌이 됐다.

도포일대는 갯벌에서 수산물 채취와 더불어 1942년 봉호제가 축조되어 수리안전담이 확보되니 부촌(富村)이 되었다.

광복 직후 30여톤 안강망 어선 20여척과 범선 100여 척이 드나들고, 200호가 사는 황금어항이었다. 농협창고가 선풍터였고, 시장도 번성했다.

1959년 조규철의 20명은 대규모 간척지공사 허가를 냈다. 1964년 570ha중 450ha



1970년대 영암 도포(都浦) 앞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집하는 주민들. /김영주씨 제공

에 달한 농경지 시공권은 송의(崇義)농장 김신근에게 넘어갔다. 1981년 영산강하구 독 용수를 공급받아 경지정리를 완료했다.

1985년 원랑리 851번지 남쪽 경작지가 과거 바다였던 해발 10여m, 4천여 평의 언덕 위에 ‘송의기독교영농단’이란 계획 개척촌이 형성됐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장, 공동농기구창고, 가옥이 배치됐다. 빨강·초록색의 경사가 급한 지붕을 가진 13동에는 충남과 전북에서 이사 온 기독교인들이 정착했다.

40평 한 채에 두 집 거주 구조로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이 있으며, 2층은 다락이었다.

송의마을 동편 1.5km쯤에 있는 함반동마을은 1970년대까지 금성나씨촌으로 15여 호의 작은 동네였다.

1985~1989년 사이에 20여 호 이상이 들어왔다. 대부분 간척지 영농의 경험자들 로 영광 백수·군남·묘량·영산, 전북 계화·금마·성산·회현·동진·고창 출신이다.

원주민 집은 기와이나, 외지인은 20평 안팎의 슬레이트블록집에 살았다. 송의와는 달리 신앙은 각각 자유다.

한 동네 안에서 출신지에 따라 서편 ‘영광촌’, 가운데 ‘중앙촌’, 동편 ‘장산촌(새터)’으로 나뉜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3**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073-5279, 0372-5279, 06274-5279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김씨도” 임박하신 겨울난방이 걱정됩니다.**

062-262-0101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관립선염-포부-허리디스크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